

주민 현장

우리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향토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산업 및 과학, 문화가 상생하는 새로운 향토를 지향하고 다같이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현장을 제정합니다.

(1980년 11월 3일 제정)(2005년 11월 3일 개정)

- 하나. 우리는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지니고,
인간애가 넘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오가와라코 호수처럼 커다란 희망을 안고,
적극적으로 협동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호산과 같은 고아함을 지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주민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오잇페 강처럼 맑은 마음을 지니고,
친절하고 예의바른 주민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나나쿠라다이라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향토를 사랑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징 마크

롯카소무리(六ヶ所村)의 첫 글자 '六'를
도안화한 것으로, 윗부분은 마을의 약진 및
발전, 아랫부분은 주민의 화합 및 협동을
힘차게 표현하였다.

(1966년 2월 제정)



■ 마을 상징 새: 흰꼬리수리



■ 마을 상징 나무: 흑송



■ 마을 상징 꽃: 닛코키스개
(각시원추리)

2022 롯카쇼 촌세 요람

발행 / 롯카소무리
〒039-3212 아오모리현 가미키타군 롯카소무리 오아자 오부치
아자 노즈키 475번지
TEL. 0175-72-2111(대표)
홈페이지 <http://www.rokkasho.jp>
편집 / 롯카소무리 정책추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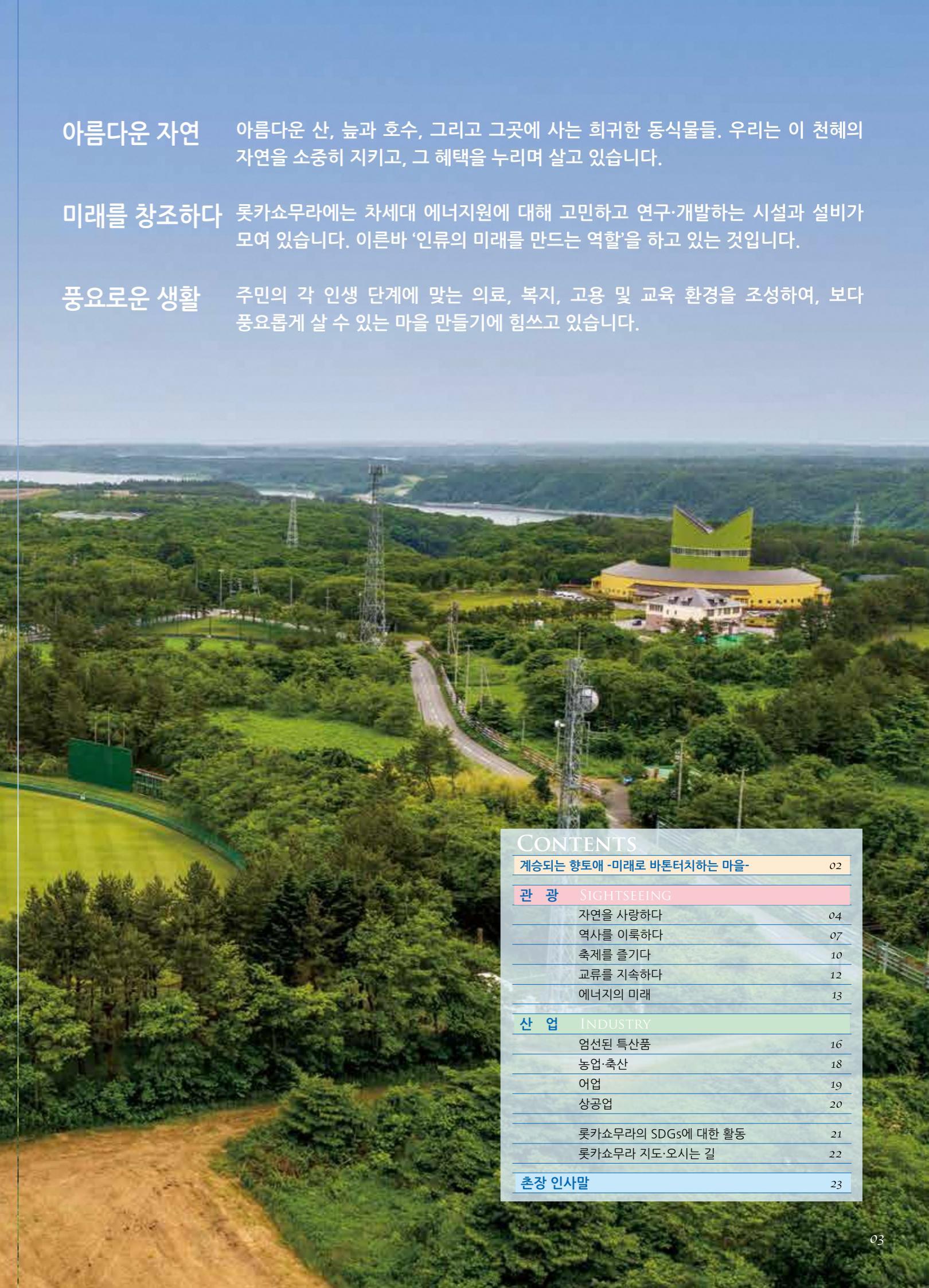
발행 2022년 3월[제1판]



2022 롯카쇼 촌세 요람

계승되는 향토애

- 미래로 바톤터치하는 마을 -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산, 늪과 호수, 그리고 그곳에 사는 희귀한 동식물들. 우리는 이 천혜의 자연을 소중히 지키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다

롯카쇼무라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개발하는 시설과 설비가 모여 있습니다. 이른바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생활

주민의 각 인생 단계에 맞는 의료, 복지, 고용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CONTENTS

계승되는 향토애 -미래로 바톤터치하는 마을-	02
관 광 SIGHTSEEING	
자연을 사랑하다	04
역사를 이룩하다	07
축제를 즐기다	10
교류를 지속하다	12
에너지의 미래	13
산 업 INDUSTRY	
엄선된 특산품	16
농업·축산	18
어업	19
상공업	20
롯카쇼무라의 SDGs에 대한 활동	21
롯카쇼무라 지도·오시는 길	22
총장 인사말	
	23

자연을 사랑하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곳에 사는 희귀한 동식물들.
우리는 이들을 사랑하고, 지키며, 공생해나가겠습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전하다

롯카쇼무라의 풍요로운 대자연은 인간이 이 땅에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존재하였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마을 모습이 아무리 변해도, 무구한 자연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롯카쇼무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농경과 고기잡이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가치관을 현대에도 이어받아, 인간의 편의나 근대화만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적합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롯카쇼무라에서는 지금도 많은 동식물과 웅대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テン산은 한 산악회가 등산로를 정비하였는데, 산 정상에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노미사키 등대

아름다운 늪과 호수, 태평양의 풍경이 있는 마을

태평양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롯카쇼무라에는 오부치누마 늪·다카호코누마 늪·이치야나기누마 늪·다모기누마 늪·우치누마 늪·오가와라고 호까지, 많은 늪과 호수가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부치누마 늪, 다카호코누마 늪의 일부와 오가와라고 호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기수호, 또 이치야나기누마 늪·다모기누마 늪·우치누마 늪은 민물로 이루어진 담수호로, 각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희귀한 생물들의 낙원입니다.

또 도마리 해안에는 다타미 바위라 불리는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존재하는데, 그 주변에서 다키노시리 폭포와 바위의 갈라진 틈에서 갑자기 바닷물이 뿜어져 나오는 ‘봇토아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오래되고 커다란 바위로 만들어진 석굴 ‘야지로 굴’은, 최근 그 모습이 마치 토토로같다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마리 북쪽에는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모노미사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끝에 우뚝 솟은 하얀 등대는 오고가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호코 들새의 고향 산림공원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다키호코누마 늪



바위의 갈라진 틈에서 바닷물이 뿜어져 나오는 ‘봇토아게’



끝없이 이어지는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



다타미 바위/도마리 해안에서는 파도의 침식 작용과 지반의 융기 현상이 만들어낸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을 볼 수 있다



다키노시리 폭포/도마리 해안 바로 옆에 위치하며 낙차는 약 6~7 m. 파도와 폭포 소리가 어우러져, 시원한 풍경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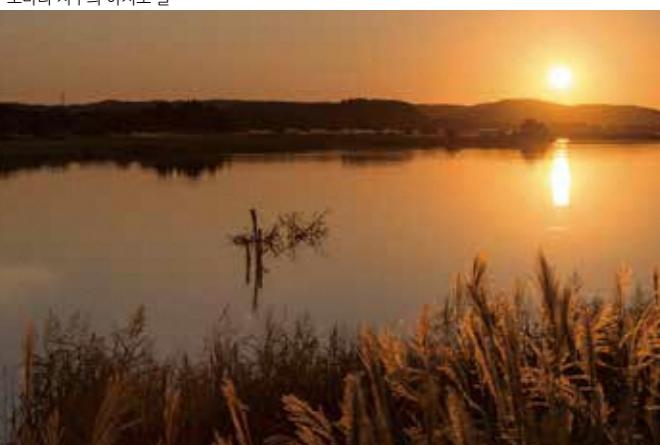
웅대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방목 소



옆을 바라보고 있는 토토로를 쑥 빼닮은 도마리 지역의 야지로 굴



겨울에 많은 백조가 날아드는 오부치누마 늪



석양에 자줏빛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다키호코누마 늪

희귀한 동식물의 보고

롯카쇼무라는 희귀한 동식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롯카쇼무라의 늪과 호수를 중심으로 희귀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이치아나기누마 늪에서 일본 최초로 뿔논병아리의 번식이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 혼슈에서는 처음으로 흰꼬리수리의 번식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참수리, 큰개비, 물수리 등 레드 데이터 북(멸종 위기종을 정리한 책)에 게재된 새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산란을 위해 기수호인 오부치누마 늪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오부치 청어’는 일본 전국적으로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개비 등 멸종 위기 조류, 물잠자리나 실잠자리와 같은 곤충, 숫잔대 등의 식물은 깨끗한 물가에서만 서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희귀 동식물들도 롯카쇼에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카쇼무라에서는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오부치누마 늪 / 롯카쇼무라 중앙에 위치하며 백조·오리·기러기 등의 들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수호이며 오부치 청어 등의 고기잡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카호코누마 늪 / 수문을 경계로 기수호와 담수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롯카쇼무라에서 가장 큰 늪으로, 백조 등의 철새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치아나기누마 늪 / 담수호로, 희귀종인 ‘후지 마리모(공모양의 녹조류)’와 ‘슬레겔 청개구리’, ‘뿔논병아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모기누마 늪 / 히라누마 강이 사구에 의해 막히면서 생성된 석호로, ‘후지 마리모’의 서식지입니다.



■우치누마 늪 / 마을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담수호로, 겨울에 물이 얼기 때문에 빙어 낚시터로 인기가 있습니다.



■오가와락호 마테고야 / 지금은 사라진 마테 어업이지만 마테고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을 상징하는 꽃, 각시원추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늘름하게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촬영: 이치노헤 가즈야기 씨)

역사를 이룩하다

선인들이 예로부터 이룩해 온 이 마을의 역사를 우리는 소중히 지키고 계승해 가겠습니다.

6개의 취락에서 탄생한 롯카쇼무라

6개 마을을 통일하여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롯카쇼무라(‘6개의 마을’이라는 뜻). 각 지명이 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전기가 200여 년 전부터 옛 구라우치 촌의 기무라 가문에 전해져 내려 온 문헌 ‘기무라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롯카쇼무라는 예로부터 명마의 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가마쿠라 시대에 ‘이케즈키’라는 명마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군마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각 지명은 말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케즈키가 나온 곳이라 하여 ‘데토(出囗, 나온 곳)’, 이케즈키의 키가 사냥매가 올라가는 장대와 같이 높다하여 ‘다카호코(鷹架, 매장대)’, 이케즈키의 등이 늑처럼 평평해서 ‘히라누마(平沼, 평평한 늪)’, 이케즈키의 꼬리에 얼룩무늬가 있었다고 하여 ‘오부치(尾囗, 꼬리 무늬)’, 또 이케즈키의 안장을 만든 곳이 ‘구라우치(倉囗, 안장을 만드는 곳)’, 이케즈키를 가마쿠라에 넘길 때에 묶었던 장소가 ‘도마리(泊, 숙박)’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고고 자료)
‘적칠 채색 절단 항아리 모양 토기’
(오이시다이라 유적)조몬 후기
(아오모리현 매장 문화재
조사센터 소장) ※롯카쇼
촌립 향토관에 복제품 소장

롯카쇼 촌립 향토관 / 홈페이지 <http://www.r-kk.com/>
롯카쇼촌에서는 조몬·야요이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다수 출토되고 있습니다. 향토관에서는 롯카쇼촌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기획전과 도마리 해안 트레킹 투어, 토기 만들기, 불 피우기 체험 등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몬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생활

롯카쇼무라에는 도미노사와 유적이나 오이시타이 유적 등 150 개소의 유적이 있으며, 특히 도미노사와 유적은 4,700년 전부터 4,000년 전에 걸쳐 약 500채로 이루어진 대규모 취락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조몬 후기의 오이시타이 유적에서는 취락 유적과 함께 어린아이의 손자국과 발자국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롯카쇼무라는 선사 시대부터 많은 유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무쓰오가와라 개발과 함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조몬 시대 초창기의 토기를 비롯한 귀중한 유적,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이 출토품 외에도, 쇼와 30년대(1955년~1964년)까지 전복과 미역 채취에 사용된 소형 어선 '통나무배' 등 귀중한 자료를 춘립 향토관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은 롯카쇼무라의 조몬 생활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스가에 마스미와 오부치노마키

간세이 5년(1793년) 겨울, 헤이안 중기의 고센와카슈에 실린 '오부치노마키'를 보기 위해 롯카쇼촌을 방문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도 시대의 여행가 스가에 마스미(1754년~1829년)입니다. 마스미는 음력 11월 30일부터 약 2주일을 이 눈 내리는 마을에서 보내며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와 그림에 담아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통나무배

도마리 지구의 통나무배는 쇼와 30년대(1955년~1964년)까지 전복과 미역 채취에 사용된 소형 어선으로,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 시대에 걸쳐 활발하게 제작 및 사용되었습니다. 통나무배는 선저가 알아 바람에 잘 휩쓸리지 않았고 다른 배에 비해 작업하기 쉬웠다고 전해지는데, 선인들의 지혜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척은 국가 지정 중요 유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 예능과 문화 계승

롯카쇼무라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인 자원을 보존·계승하고 있습니다. 가구라 등의 전통 예능은 도마리, 데토, 도쿠사리, 지토세, 지토세타이, 히라누마, 구라우치, 나카시, 오부치, 오부치하마, 후타마다, 무로노쿠보에 전해지고 있으며, 각 지구의 보존회가 지키며 아이들에게 계승합니다. 마을 내 각 지구의 가구라나 사자춤을 다른 지구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보존회 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신춘에 민속놀이 발표회가 개최됩니다. 발표회에서는 각 지구의 보존회와 아이들의 춤이 펼쳐지며, 마을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스가에 마스미 '오부치노마키'
(아키타 현립 박물관 소장 사본)

스가에 마스미 초상화
(아키타현 오다테 시립 중앙 도서관 소장)
'도마리의 봇토아게', '오부치의 오두막'



'통나무배' (롯카쇼무라 춘립 향토관 소장)



도마리온도 나가시오도리 보존회



롯카쇼온도 보존회



구라우치 어린이 가구라 육성회

가구라

롯카쇼무라에는 각 취락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구라'라는 전통 춤이 존재합니다. 크게 '다이카구라'와 '야마부시카구라'가 있고, 이는 다시 하야치네 계열과 노마이 등 여러 계통으로 나뉘는데, 취락마다 각각 다릅니다. 가구라는 축제일에 신사에 봉납되며, 경월에는 집집마다 기도하며 돋니다. 이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마을에서는 가구라를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였고, 보존회 사람들이 이를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히라누마 가구라 보존회



히라누마 가구라 보존회



구라우치 어린이 가구라 육성회



도마리 가구라회



신간겐 보존회



히라누마 어린이 가구라회



축제를 즐기다



연어 맨손 잡기/롯카쇼 산업축제

사계를 즐기고, 자연에 감사하며, 축제를 즐긴다.
기쁨과 감동으로 유대감이 강해지고 교류의 폭이 넓어집니다.



밤을 물들이는 불꽃놀이와 레이저 광선/타노시무베! 페스티벌



무대 위의 연무/롯카쇼 산업 축제



다시(山車) 운행/도마리 예대제



전야제/도마리 예대제

지역 전통 행사뿐 아니라, 국내외 사람들이 펼치는 다양한 국제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지는 축제나 주민 간의 깊은 교류를 도모하는 이벤트도 있어, 매년 많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타노시무베! 페스티벌 (6월 상순)

음악과 레이저 광선 연출이 가미된 불꽃놀이를 비롯하여, 타노시무베 키즈 마라톤과 로쿠수 스페셜 추첨회, 코미디 무대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롯카쇼무라를 대표하는 봄 축제입니다.

도마리 예대제 (7월 18일~20일)

해상 안전과 풍어 기원을 위해 '기호산 신사'와 '스와 신사'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축제. 첫날은 스와 신사, 마지막 날은 기호산 신사의 미코시(神輿, 제례나 축제용 가마)나 다시(山車, 축제용 장식 수레)가 마을 곳곳을 누빕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항구축제인 '미나토마쓰리'가 개최되는데, 도마리 어항에서 여러 가게의 출점과 불꽃놀이가 이뤄져, 항구의 전통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입니다.

에너지파크 마라톤 (9월 마지막 일요일)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관련 시설과 산, 바다, 강 등 풍부한 자연이 공존하는 롯카쇼무라의 마라톤 코스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마라토너들이 달립니다. 완주한 참가자가 본인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일본 하프 마라톤 랭킹'에 해당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교류 페어 (10월 중순)

국제색이 강한 우리 마을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마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방문객은 각국의 부스에서 각각의 언어로 인사나 회화, 게임을 즐기는 것 외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총민 문화제 (10월 하순)

예술의 제전 총민 문화제는 주민들이 1년 동안 연습한 춤, 연주, 합창 및 제작 작품들을 선보이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쿠사리 신소바 축제 (10월 하순)

신소바(햇메밀)의 계절에 열리는 지역 주민의 수제 메밀국수 축제입니다. 초가 지붕의 물레방앗간 '잇코암'이 서 있는 한적한 풍경을 바라보며, '3갓'(갓 빵은,갓 반죽한,갓 삶은)이 갖춰진 향긋한 메밀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롯카쇼 산업 축제 (11월 상순)

대표 이벤트인 '연어 맨손 잡기'를 비롯하여, 오가와라고 쇠고기를 아낌없이 사용한 '바비큐 파티', '아침 시장' 등 먹고 놀면서 롯카쇼무라 농수산물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경스포츠 대회 (개최 시기 미정)

셔플 보드나 그라운드 골프 등 뉴스포츠를 통해 스포츠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스포츠는 연령과 체력에 관계없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활기찬 어린이들이 공원 안을 달립니다/타노시무베! 페스티벌



전국 각지의 많은 마라토너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에너지파크 마라톤



주민들이 1년간 연습한 성과를 선보입니다/총민 문화제



여러 나라의 문화 및 연극 발표/다문화 교류 페어



다양한 뉴스포츠 즐기기/경스포츠 대회



향긋한 햇메밀 맛보기/도쿠사리 신소바 축제



각국 부스 출전/다문화 교류 페어

교류를 지속하다



롯카쇼무라만의 매력적인 환경.
마을 전체의 국제 교류가 해외에 대한 주민의 호기심을 길러 줍니다.

다양한 문화 교류

우리 마을에서는 '문화 교류 플라자 스와니', '국제 교육 연수 센터'나 '공민관' 등 마을 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어 교실을 비롯해 다도■서예 등의 문화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와니에 인접한 춘민 도서관은 약 49,000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한 낭독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성되는 국제 교류

롯카쇼무라는 1994년부터 독일 바렌시와 우호 도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축구 교류와 고등학생 다문화 교류

체험을 통해, 한국 양양군과의 우호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등학생은 호주, 중학생은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연수가 있어, 주민들이 국제 교류와 문화를 대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육 연수 센터에서는 영어■독일어■한국어■프랑스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고, 마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기는 요리 교실 '월드 키친'이나 매년 할리윈 시기에 개최되는 '다문화 교류 페어'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양양군 방문단의 연무



독일 바렌시 방문단



해외 홈스테이 체험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즐겁게 배우는 아이들

에너지의 미래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 나아가 SDGs에 대한 대응 등 일본 에너지 환경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세계의 에너지와 롯카쇼무라

국내외에서 2050년 탄소 중립,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 및 제6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한 에너지 수요 구조 과제 극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에너지 추진의 기본이 되는 롯카쇼무라 신에너지 추진 계획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의 생활 향상'을 염두에 두고, 신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산업, 관광, 복지, 교육, 방재, 마을 만들기의 지역 과제 해결과 환경·사회·경제 면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적은 일본은 기업·연구기관·행정기관이 하나가 되어 신에너지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경이 갖추어진

롯카쇼무라는 에너지 마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도 신에너지의 활용에 책임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에너지와 산업 진흥

마을에는 국가 프로젝트인 무쓰오가와라 개발을 계기로 약 100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세계에 공헌하는 과학 기술 창조권 형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의 유치·입주에 의해 고용 창출과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 주변 지역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진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풍력 발전 유닛' 견학도 가능



일면에 펼쳐지는 메가솔라



전기 자동차



에너지 마을을 지탱하는 사람을 육성하다

다양한 에너지 관련 시설이 집적된 롯카소촌의 특성을 살려 적극적인 인재 육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촌 내에 분실을 두고 있는 도호쿠대학 대학원 공학부와 제휴하여 촌 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에너지나 방사선 등을 테마로 한 출장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게는 오픈 캠퍼스 견학이나 대학생과의 교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촌 내의 초·중학교에서는 현 내의 에너지 관련 시설 견학이나 강연회 등과 같은 환경·에너지 교육을 추진하여 에너지 마을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폭넓게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고도 이용에 관한 선진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호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양자에너지공학 전공 롯카소 분실)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 카다라쉬 연구소와의 원격 실험 모습 국제 핵융합 에너지 연구 센터



도호쿠대학 대학원 양자에너지공학 전공 롯카소촌 분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고도 분리', '방사성 동위 원소의 고도 이용'과 같은 신 원자력 이용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동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양자에너지공학 전공의 사회인 대학원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과학의 가능성

롯카소무라에서는 다양한 최첨단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핵융합 에너지의 실현을 목표로 일본과 유럽의 공동 프로젝트인 'Broader Approach(BA) 활동' 및 일본의 블랭킷 개발 거점으로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을 포함한 양자 과학 분야에서는 새롭게 인재 육성, 연구 개발의 거점이 정비되어 사이클로트론(가속기 등)을 활용한 의학·공학 응용과 새로운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에너지 관련 시설의 집적지인 롯카소무라만의 지역 특성을 살려, 최첨단 차세대 에너지 연구에 임하겠습니다.

REP 롯카소촌 차세대 에너지 파크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화나 연료 가격의 급등을 배경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 에너지의 도입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신 에너지를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를 많은 사람이 보고 접할 기회를 늘려 차세대 에너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이해를 넓힐 목적으로 이들 설비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차세대 에너지 파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파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창구가 되는 센터 기능과 각 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투어를 정비·운영하는 '에너지 마을, 롯카소'의 현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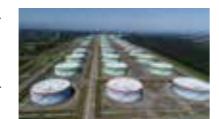
롯카소촌은 많은 풍력 발전 시설, 원자력 연료 사이클 관련 시설이나 국제 핵융합 에너지 연구 센터, 석유 비축 기지 등의 에너지에 관한 시설이 모여 있는, 전국에서도 드문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롯카소촌에 차세대 에너지 파크를 인정하는 것은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에 관해 홍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또, 전국으로부터 사람이나 산업이 모이면 롯카소촌의 관광·지역 진흥으로 이어집니다.

■ 차세대 에너지 파크 시설 일람

무쓰오가와라 국가 석유 비축 기지

긴급 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 석유 비축 사업의 제1호로서 1983년에 조업 개시. 현재 기지 내에는 일본 석유 소비량 12일 분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후타마타 풍력 개발(주)

대형 풍차 34기로 이루어진 총 발전출력 51,000kW의 발전소입니다. 인근에 풍차를 유지 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며, 풍차를 효율적으로 보수하는 기술을 익히는 훈련 시설도 병설되어 있습니다.



로쿠슈 양조 공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최신의 과학 기술을 살린 풍력 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의 하나로, 부지 내에 다결정형 태양 전지 모듈을 채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쓰미사카에 풍력 발전소

일본산 대형 풍차 5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전체 세대수가 1년간 소비하는 전력량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풍차는 농지에도 설치되어, 지역 농가와 공존하며 지역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롯카소 원연 PR센터

우라늄 농축 공장,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설 센터, 재처리 공장 등의 원자력 연료 사이클 시설이나 원자력·방사선에 대해 대형 모형과 영상 등으로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공익재단법인)환경 과학 기술 연구소

원자력 연료 사이클 시설의 안전성을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처리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환경 중의 움직임에 관한 실험이나 자연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네원 솔라 파크 롯카소촌

가스·에너지 중심으로 한 생활 관련 산업을 전개하는 (주)사이산과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신 와 에 너 지 (주)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소(메가솔라)입니다.



가미키타 로쿠쇼 태양광 발전소

롯카소촌 무쓰오가와라 개발 지구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패널 용량은 71메가와트이며, 그 연간 발전량은 일반 가정 약 13,300세대분의 전력 소비량에 상당합니다.



'롯카소촌 차세대 에너지 파크' 3가지 컨셉

①체험형 정보 발신

방문객이 차세대 에너지를 실제로 보고 접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공원.

②과거·현재·신 에너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시대 배경과 에너지 구조, 그 변화를 되짚으며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원.

③자립×협조성 사업운영

각 시설은 자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보,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서는 시설 간에 긴밀하게 연계하는 파크.

무쓰오가와라 원드 팜

일년 내내 바람이 강한 롯카소무라의 지역 특성을 살려 풍차 21기가 운전 중입니다. 총 발전 출력 31,500kW(연간 약 5,800만kWH)라는 일본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기구 롯카소 연구소 (국제 핵융합 에너지 연구 센터)

핵융합 에너지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프랑스 실험로 ITER 지원과 ITER 다음의 발전 실증을 하는 원형로를 위한 선진 핵융합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러스 롯카소 솔라 파크

롯카소촌의 다카호코 지구, 지토세타이키타 지구에서 도쿄 동 약 50개분에 상당하는 253 �ектาร에 약 51만 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아오모리현 양자 과학 센터

원자력을 포함한 폭넓은 양자 과학 분야의 인재 육성과 연구 개발의 거점으로 아오모리현이 설치했습니다. 원자력 안전·방재, 방사선 관리 등의 전문적 인재 양성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엄선된 특산품

풍요로운 자연이 키운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특산품입니다.



롯카쇼무라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농업·수산업·축산업 등의 생산물을 원료로 한 매력적인 특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계절에 맞는 향토 요리나 색다른 발상에 의한 가공품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갓 잡은 신선한 오징어를 선상에서 간장에 절인 '오징어 젓갈'과

달고 농후한 맛으로 인기 있는 도마리산 '성게 소금 절임' 등의 수산 가공품, 롯카쇼산 참마를 사용한 소주 '로쿠슈'와 '도로로 만주', 성게와 다시마로 만든 과자 '성게·다시마 양갱' 등, 롯카쇼무라가 자랑하는 훌륭한 특산품을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로쿠슈(본격 참마 소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참마로 만든 귀한 소주.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는 풍미와 은은한 단맛이 매력.



로쿠슈 양조 공방



성게 소금 절임·성게 덮밥
평판 높은 도마리산 성게를 사용한, 달짝지근하고 농후한 맛의 일품입니다.



롯카쇼 해물 짬뽕
롯카쇼산 우엉과 오징어를 아낌없이 사용한 일품 짬뽕. 인기 계절 메뉴.



블루베리 주스, 쟈
롯카쇼무라에서 생산한 블루베리와 딸기를 가공하여 주스와 쟈를 만듭니다.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HappyBerry 치즈 케이크슈크림
아오모리현에서 생산한 우유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만든 치즈와 쟈는 너무 달지 않아 산뜻한 챠과의 하모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쿠사리 메밀국수

10월의 도쿠사리 신소바 축제에서는갓 뽑고,갓 반죽하여,갓 삶은 향긋한 메밀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해산물 덮밥
도마리산 성게와 신선한 해산물을 듬뿍 얹은 롯카쇼무라가 자랑하는 덮밥입니다.



롯코 라이스
롯카쇼산 참마 샐러드, 이카멘치(잘게 다진 오징어가 들어간 튀김요리), 오징어 먹물 카레, 오징어 파스타가 하나가 된 '맛있음'의 종합 선물 세트.



롯카쇼무라 오리지널 드레싱

참마, 블루베리, 우엉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제품. 가정용으로도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사과 춘권

바삭바삭한 식감의 외피, 그 속에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커스터드 크림과 아삭아삭한 사과가 식욕을 돋웁니다.



모로미 베이크드 치즈 케이크
본격 참마 소주 '로쿠슈'의 모로미(거르기 전의 걸쭉한 술)를 사용한 진한 치즈 케이크.



오징어 젓갈, 각종 조개 구이
오징어나 연어를 듬뿍 사용한 젓갈이나 된장 조개 구이는 저녁 반주에 딱 좋은 술안주. 팽팽한 광어 절임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부의 문어 쓰쿠네

지역 어항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문어를 아낌없이 사용한 일품. 술안주로도 어린이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나나쿠라 월동 당근 주스

한겨울을 땅 속에서 보낸,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히토미 당근을 100% 사용. 달고 마시기 편한 상큼한 당근 주스입니다.



아오모리 이로도리 도시락
롯카쇼를 포함한 아오모리 현의 식재료를 사용한 다채로운 메뉴의 도시락입니다.



빗코리교텐동
가늘게 채 썬 롯카쇼산 채소와 오징어를 바삭하게 튀겨 올린 푸짐한 튀김 덮밥입니다.

농업·축산



**천혜의 환경과 광대한 자연을 활용한 농업과 축산업.
스마트 농업의 도입과 후계자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야마세(편동풍)의 영향을 받는 롯카쇼무라에서는, 참마나 우엉 등 냉해에 강한 균채류 재배에 힘써 왔습니다. 아오모리현이 전국 최고 수준의 출하량·경작 면적을 자랑하는 참마는 마을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우엉 등의 균채류와 함께 널리 경작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참마와 우엉은 소주나 과자, 드레싱 등 새로운 상품으로 가공되어 마을의 주요 토산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노동력을 절감하는 농업의 생력화,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기계의 자동화나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 청년 농업 경영자 협의회를 설립하고 신진 후계자를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롯카쇼무라는 아오모리현 제일의 낙농 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풍요롭고 온화한 자연 속에서 자란 소와 우유는 각지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광대한 자연 속에서 방목되는 젖소



쌀 수확 작업



청년 농업인들이 실시하는 초등학생 참마 수확 체험 활동



소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자동 착유기

어업



**어초 설치 등을 통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롯카쇼무라는 바다의 천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 갑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롯카쇼 근해는 어패류의 보고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살오징어와 고등어가 어획되며, 가을부터 겨울까지 연어, 한치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 늪과 강이 있기 때문에, 연어, 송어, 횡어 등 바다에서 강·늪으로 회유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다카세 강에서는 재첩잡이, 우치누마 늪과 다모기누마 늪에서는 빙어잡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마리 지구에는 질 좋은 성게, 전복 외에도 다시마나 미역, 청각채 등의 해조류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 어업 경영자 협의회'를 설립하여 미래의 후계자 확보와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획량 회복을 위해 재첩 방류와 전복 종묘 육성, 한치 산란을 위한 새 어초 설치 등, '기르는 어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오징어잡이 배



제빙 시설



정치망 어획의 그물 작업



도마리 지구에서 행해지는 성게잡이 해금일



퐁어의 고등어 선정 작업



연어의 치어 방류 활동

상공업



지역 상품을 전국적으로 배송하는 유통 형태를 개척하면서도 주민을 위한 상업적 체계를 제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부치 레이크 타운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쇼핑몰 '리브'뿐 아니라, 마을 특산물인 참마 등의 채소나 어패류를 취급하는 특산품 판매소 '로쿠순칸'이 설립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롯카쇼무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마리 지구, 오부치 지구에서는 아침 시장이 열리는데,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로 아침 일찍부터 북적입니다. 또, 쇼핑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2가지 목적을 위해 이동 슈퍼 '오지로 호'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마을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롯카쇼에서는 아오모리 현内外로부터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주변 지역의 고용 확대와 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로쿠순칸에서는 다양한 퍼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꽃 공방



북적거리는 아침 시장



쇼핑몰 '리브'



연중 화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동 판매차 '오지로 호'



리브 내에는 자유 공간(일본 원연 고류 플라자)도 완비

롯카쇼무라의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활동

롯카쇼무라는 환경·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지향합니다

롯카쇼무라는 'SDGs 일본 모델 선언'을 비롯하여 제4차 롯카쇼무라 종합진흥계획과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으로 'SDGs를 기점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를 내걸고, 사회·환경·경제의 광범위한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마을 전체의 신에너지 추진의 기본이 되는 롯카쇼무라 신에너지 추진계획을 책정하고, '마을 주민의 생활 향상'을

염두에 둔 신에너지 활용 산업, 관광, 복지, 교육, 환경, 방재,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역 과제 해결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1/ 경제의 힘을 높이기 위해
개성 넘치는 다양한 산업을 육성한다
 -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2/ 인재의 힘을 높이기 위해
미래를 지탱하는 사람과 문화를 육성한다
 -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3/ 안심의 힘을 높이기 위해
함께 건강하고 생기있는 생활을 만든다
 - 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4/ 안전의 힘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해에 대응하여 안전을 지킨다
 - 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5/ 자연환경의 힘을 높이기 위해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가꾸고-전한다
 - 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6/ 생활환경의 힘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의 장을 만든다
 - 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7/ 협동의 힘을 높이기 위해
관민 협조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탱한다
 - 8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찾자 고향의 보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한 교육~

지역의 자율적 선순환,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활동으로써, 학교 교육에도 SDGs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롯카쇼 촌립 미나미 초등학교에서는 '프로젝트 미나미'를 책정하여 독특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미 찾자(미쓰케요) 친구의 장점 고향의 보물

나 동료(나카마)와 함께 하자

미 모두(미인나)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자'

를 모토로 자신이 살고 있는 '롯카쇼무라의 장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촌립 지토세타이 초등학교와 합동으로 실시한 수학여행에서 롯카쇼무라의 장점을 PR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다함께 수집한 마을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내는 등 많은 궁리를 거듭하여 PR 팸플릿을 작성했습니다. 팸플릿은 '롯카쇼무라'에서 유래한 추천 장소 '6 곳'을 피업한 '직소 퍼즐 버전'과 마을의 추천 장소를 칸마다 한 곳씩 PR한 '주사위 버전'으로 2종류가 있으며, 양쪽 모두 향토애가 넘치는 멋진 팸플릿입니다.

그 외에도 '전기와 에너지'를 테마로 한 학습에서는 마을의 에너지 시설을 견학하거나 전지로 달리는 모터카 제작, 전기차 시승을 체험하며, 환경을 비롯한 경제-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SDGs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롯카쇼무라가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인재 육성 활동이자 '고향의 보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미소 넘치는 롯카쇼무라 지도

무쓰만



자동차로~	도호쿠 신칸센으로~
아오모리~롯카쇼 1시간 40분	도쿄~시치노헤토와다 3시간 10분
노헤지~롯카쇼 40분	센다이~시치노헤토와다 1시간 30분
시치노헤~롯카쇼 60분	
미사와~롯카쇼 50분	
하치노헤~롯카쇼 1시간 20분	
도호쿠 자동차도로~	재래선으로~
모리오카~하치노헤 1시간 30분	하치노헤~노헤지 45분
센다이~하치노헤 3시간 30분	아오모리~노헤지 45분
페리로	
하코다테~오마 90분	

합승 택시

운임 성인 3,500엔
예약 TEL 0175-77-3086

*예약은 이용 전날 17시까지

택시

도마리 관광 택시(도마리)
도마리 관광 택시 오부치 영업소(오부치)
쥬칸 택시 오부치 영업소(오부치)
미야고 택시 롯카쇼 영업소(오부치)
도와다 택시 오부치 영업소(오부치)
오조라 교통 롯카쇼 영업소(오부치)
이야사카 관광 택시(오부치)

렌터카

이야사카 자동차점 오부치점(오부치)
토요타 렌탈리스 노헤지 영업소(노헤지마치)
에카 렌터카 시치노헤토와다 영업소(시치노헤마치)
오릭스 렌터카 오마 페리 부두(오마마치)
토요타 렌터카 미사와 공항(미사와시)
토요타 렌터카 아오모리 공항(아오모리시)



발간하며

롯카쇼무라는 아오모리현의 동쪽, 시모키타 반도의 아래쪽에 위치한, 풍부한 자연과 에너지 산업이 공생하는 마을입니다.

옛부터 명마의 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고가에서 읊어진 ‘오부치 말’과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소유한 명마 ‘이케즈키’의 탄생지로 전해져 왔습니다. 메이지 시대, 정촌제 시행으로 말과 관련이 깊은 지명을 포함하고 있는 6개의 마을이 모여 ‘롯카쇼무라(6개의 마을이라는 뜻)’가 탄생했습니다.

선대부터 계승되어 온 1차 산업은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편동풍(야마세)의 영향으로 몇 번이나 냉해를 입었으나, 서늘한 기후가 적합한 낙농업과 근채류 재배를 통해 홀로를 찾았습니다. 현재는 아오모리현 제일의 낙농 지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침마, 우영 등의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업에서는 오징어, 연어, 재첩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이들 1차 생産품은 마을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롯카쇼무라는 일본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다양한 에너지 산업의 집적지이기도 합니다. 원자 연료 사이클을 비롯하여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에너지 산업을 축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대자연과 산업을 지키고, 마을 주민 개개인의 생활을 소중히 하여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매진해 가겠습니다.

이 촌세 요람이 롯카쇼무라를 널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력이 넘치는 마을 ‘롯카쇼무라’에 꼭 방문해 보세요.

롯카쇼무라 촌장 도다 마모루

